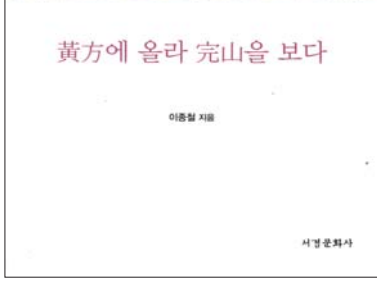


전주에 숨어 있는 '완산의 퍼즐' 책으로 퍼내

이종철 학예연구사, '황方に 올라 完山을 보다' 출간

전북대학교박물관 이종철 학예연구사가 완산(完山), 황방산의 고분, 전라감영에서 출간한 동양사·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다양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긴 책 '황方に 올라 完山을 보다'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황方に 올라 完山을 보다' 출간

책에는 저자가 오랜 시간 생각해 왔던 전라북도 역사·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다양한 연구 논문과 함께 다양한 생각을 담은 칼럼, 그리고 시와 글씨, 그림 등이 다채롭게 담겨 있다. 저자에 따르면 이 책을 통해 황방산 꼭대기에서 발견된 고분과 그 해석을 처음 공개했다. 직경 7~8m가량의 이 고분에 대해 저자는 세 가지 해석을 내놓았다. 하나는 전북혁신도시에서 80여 기가 발굴조사된 완주 신궁 유적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목관묘(토관묘) 계통의 최상위 유적자 무덤, 다른 하나는 삼국시대 백제의 고분, 또 다른 하나는 고려시대 고관대작의 무덤일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황방산 꼭대기에 고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발굴을 팔아 기껏 세상에 알려 놓았는데, 도굴이나 훼손의 가능성 때문에 공개가 우려된다는 필자의 고민이 눈에 띈다. 또한 백제 때 전주의 지명이었다는 완산(完山)이 왜 완산이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이

이 큰 마을을 이루고 살았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당시 유력자가 마을을 통치했고, 주변의 세력들을 규합함으로써 완산이라는 산의 이름이 마을의 이름뿐만 아니라 전주천을 배경으로 하는 지역명으로 통합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대안위 주택단지로 발전해 온 공간이라 옛 흔적들을 발굴조사 하기엔 불가능해 보인다. 이 밖에도 전주 문명의 오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청동기시대의 송국리형문화에 대한 논문도 별도로 추가해 좀 더 자세하고 심화된 선사시대의 문화도 살펴볼 수 있다. 저자는 "자료의 부족과 추론의 한계로 인해 좀 더 세심한 역사적 접근에 박차를 가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밀도 있게 접근해보고자 하는 작은 결심에서 이 책을 펴내게 됐다"며 "부지런히 발굴을 팔아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차근차근 정리하고 쉽게 풀어내는 것이 본연의 연구와 책을 같이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책에서는 지금의 완산철거를 주목하고 있다. 가장 높은 봉우리가 완산이었음을 고지도를 통해 고증했고, 백제 이전부터 선주민(先住民)

'코로나19, 우리들의 이야기' 출간

전라북도 문화비리협의회, 기념 북콘서트 가저

전북권 5개 문화재단이 함께하는 전라북도 문화비리협의회에서 '코로나19, 우리들의 이야기'를 출간, 이를 기념하기 위한 '2021 문화비리 북콘서트'가 지난 23일 열렸다.

2021 문화비리 북콘서트에는 이기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북권 문화재단 관계자들과 직접 책을 집필한 전라북도 문화비리 위원 및 기록 참여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전별 문화비리 위원장의 진행 하에 집필자들이 기록의 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함께 나누고, 이를 통해 기록 중에 관찰한 지역 문화의 변화된 모습과 그로 인한 현안 과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는 전북권 문화재단의 협력사업인 전라북도 문화비리 협의회가 주관했다. 전라북도 문화비리 협의회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 고창문화관광재단(이하 '전

북권 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하고, 14개 시·군의 지역문화 활동가들이 문화비리 위원과 함께하는 정책 협력 사업이다.

올해는 '전라북도 지역문화가 체감하는 코로나19'를 주제로 지역문화의 변화와, 문화비리 위원들이 각 지역의 지역문화예술인, 활동가, 도민분들을 직접 만나 코로나로 인해 변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 기록 과정을 정리하고 담은 '코로나19, 우리들의 이야기' 책이 출간됐다.

한편 '코로나19, 우리들의 이야기' 책에는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장수군 생태관광지 관계자 등 다양한 전라북도 지역의 인물들을 인터뷰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책의 전문은 '전북권 문화재단' 각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정책연구팀(063-230-743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제15회 전북청소년영화제 개최

25~27일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서

전북지역 청소년들의 영화 축제가 펼쳐진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제15회 전북청소년영화제'가 25~27일까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열린다. 전북청소년영화제는 도내 청소년과 교사들이 함께 만드는 영화 축제로, 청소년들이 영화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한 자리에서

만나 소통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따로 또 같이, again'을 주제로 경쟁 부문에서는 초·중·고교 학생 작품 33편이 선보인다. 비경쟁 부문에서는 제1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초청작 3편, 제4회 전북가족영화제 초청작 1편, 제14회 전북청소년영화제 프 작품 4편, 제3회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작품 4편 등이 상영된다.

개막식은 25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며, 개막작으로는 제이박 감독의 '조지아', 더그 롤랜드 감독의 '갑각을 통해서'가 상영된다. 또 경쟁작은 4개 섹션으로 나눠 상영되고, 영화제 운영위원회에서 위촉·선정한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대상 1편과 아차상 1편을 시상한다. 금·은·동상은 초·중·고 별로 각각 1편씩 선정하고, 특히 중·고등학교로 구성된 관객심사단이 초·중·고 작품 각 1편을 관객심사단 특별상으로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폐막식은 오는 27일 오후 4시 개최되며, 폐막작으로는 경쟁 부문 수장작 1편을 상영한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전주비전대·전주대 합동 태권도 시범공연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박물관 강당에서 전주비전대학교와 전주대학교의 태권도 시범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단체적 일상회복' 시행 후 첫 문화공연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주말 오전 11시와 오후 3시, 1일 2회로 총 14회 펼쳐진다. 전주비전대학교는 왕위정발전이라는 주제로 태권도 품새와 호신술 등 기본동작을 활용한 태권도 퍼포먼스와 고난이도 격파를 중심으로 하는 태권도 정통시범, 유행가에 맞춰 공연을 진행하는 태권무 등을 선보인다.

또한 전주대학교 태권도학과는 태권도 시범 특화학교로 2014년부터 매년 세계 태권도 한마당 시범공연의 우승을 거머쥔 최고의 시범단으로 '싸울아비' 공연을 펼친다. 특히 좌석간 거리두기, 발열체크 및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이외에도 공연을 관람한 관람객에게 국립전주박물관 대표 문화행사를 주제로 제작한 스크래치북을 선착순 제공하며, 온라인을 통해 공연 관람 인증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현장 간담회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각·공연·청년·문학 등 분야별 예술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분야별 애로사항 청취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심의제도, 행정절차 간소화, 재정지원 확대, 예술가 간 지속적인 교류의 장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오는 30일에는 사)한국예총전라북도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단 등 관계자가 참석하는 가운데 '전북문화예술발전 방안'을 위한 간담회가 열린다. /장은성 기자

제13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서울전 개최

'2021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오는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비엔날레 서울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전시 행사 기간 중 처음으로 '서울전' 전시를 오픈했다. 올해 특별 행사로 전주·군산·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야외전시 '어디엔들 서예가 없으랴'에 출품된 95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서울전 전시장 개장식에 윤점용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원로서예가 초청 권관령, 무림 김영기 서예총연합회권관대

행, 한국전각협회 회장 동구 황보근, 한국미술협회, 한국서예협회, 한국서가협회 대표들과 참여작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서울전을 주관한 윤점용 집행위원장은 "서예비엔날레의 많은 관람객에게 서예의 멋을 알리고 소통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야외전시와 서울전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참여 작가 여현 김정화 선생은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돼 큰 의미를 두고 전주에 방문했는데 가까운 서울에서 실제 작품으로 전시돼 다시 와 보니 더욱 더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호흡 맞춰 노래로

제5회

전라북도 아리울 어버이 합창제

합창

2021년 12월 4일(토) 오후 3시~6시

전주 바울교회 2층 그레이스홀

주최: 전주매일신문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